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5:13-14)

목회방향

1.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2.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3.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4.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2020년 6월 21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시 144:12-15, 고후 5:17

제목 : 애국하는 신앙 · 영화로운 나라(3): 복음전도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도다” (고후5:17)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
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컨대 인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끝난다면 제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 것만 추구한다고 살아 가면 됩니다. 내세의 심판 같은 것은 전혀 염두 해 두지 않습니다. 혼한 말로 지옥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왜 코로나 19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주일 날 나와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모두 다 발열 체크하고, 손을 세정제로 씻고, 문진표를 작성하고, 특히 무더위에 한 시간 이상 마스크를 쓰고서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경에서는 인간을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한번 화면으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띄움)

육은 육체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혼은 생각입니다. 정신입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인간은 문명과 문화는 발달해 왔습니다. 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창2:7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인간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 아담과 이브가 범죄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이 죽음으로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육신이 마음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몸과 마음이 움직입니다.

가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이 점점 자라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마음과 육을 지배하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하여 바울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세상의 모든 죄는 바로 속사람이 죽은 영이 죽은 자들로부터 옵니다. 속사람이 죽었기에 영이 마음과 육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냥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핫김에 사람을 죽였다. 집에서 부

모의 유산을 남기다가 심하게 다투어 가족끼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카드빚 때문에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를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빚이 아닙니다. 재산권의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인간이해로는 바로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육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타락전의 모습) 영이 살아 있으면 빛으로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 영이 생명의 소중함을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 하면서 열심히 일해라 꾀하고 해 뜰 날 분명히 온다, 자꾸 마음의 생각을 조절하게 만듭니다. 영이 살아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죽은 영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면 영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에서의 죽게 하신 일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 한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피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린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믿으면 영이 삽니다. 그 영이 살아나니 영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 마음이 육신을 지배하니 삶의 걸의 모습이 아주 변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영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모습: 타락전의 모습)

아주 난폭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해서 수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먹으면 난폭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면 자녀들은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주지도 않았습니

다. 그러던 이 분이 어느 토요일 한 목사님이 인도하는 전도 부흥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부흥 강사의 설교를 듣는 데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죽었던 속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그렇게 먹던 술을 끊게 됩니다.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부흥사가 에버딘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에버딘은 영국 스코틀랜드 동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 조선, 수산업, 모직, 제지 따위의 공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당연히 타락하기도 쉬운 곳입니다. 이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어떤 손이 자기의 코트를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길을 멈추고 돌아다보니 옷차림이 몹시 남루한 한 작은 스코틀랜드 소녀가 손에 무엇인가 종이에 싸 물건을 꼭 쥐고 서 있습니다.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애 야! 왜 그러니?" 그러자 소녀는 종이에 싸 뭉치를 그에게 불쑥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것 받으세요." "그게 뭔데?" 소녀는 부끄럽다는 듯이 "선생님 드리려고 가져온 캔디예요." 말합니다. "오. 캔디. 무슨 캔디지?" 그러자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새 아빠를 가지게 되었어요. 선생님. 우리 아빠는 지난 토요일까지는 한 번도 술 취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이상하게 술을 마시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아빠가 어떻게 술을 마시지 않으셨을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 토요일 이후 아빠는 언제나 맑은 정신으로 계시면서 얼굴이 환히 밝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아빠에게 여쭙 보았지요. 그랬더니 아빠는 지난 토요일 선생님의 집회에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술도 마시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캔디도 사가지고 들어오세요. 아빠를 그렇게 변화시켜 준 선생님께 이 캔디를 드리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이목사는 너무도 감사했고 더욱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는 후에 당시의 감격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일생에 이처럼 귀한 선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내 일생이 그 한 순간을 위해 지어졌던 것같이 느껴져요." 유명한 영국의 부흥사였던 집시 스미스의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의 영이 살아나니까 마음도 살아나고 영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니 술을 끊는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 부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찬양가사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렇게 변하여 새사람된 것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오셨기 때문인 것을 강조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을 무려 4번 이상 강조합니다. 2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 주 예수 내 맘에 들어

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 털 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 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영이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결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영이 살게 되면 그 영이 마음을 살리고 육신을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겉으로 나타납니다. 영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일터가 변합니다. 사회가 변합니다. 나라가 변합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민족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백범 김구(1876~1949) 선생은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1개를 신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 말은 광복이후의 혼란 시기에 그가 남긴 그 유명한 말입니다.

6월 26일 백범 소천 71주기가 됩니다. 1945년 광복으로 귀국한 뒤 매일 새벽 6시면 자신의 사저인 경교장으로 찾아온 김치선(당시 남대문교회 시무)목사와 함께 새벽예배를 드렸습니다. 김 목사님이 오전 5시 남대문교회 새벽예배를 마치고 나서 일부러 백범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밀정들에게 암살을 당하지 않을 까 염려해서 백범 선생이 매우 운신을 조심할 때였습니다. 주일에는 남대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1개를 신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 유명한 말은 남대문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교회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 앞에서 꺼낸 얘기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국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우리 교회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러브 페스티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러브 페스티발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일,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 내가 아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복음을 그 사람의 심령에 넣는 일입니다. 복음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영이 주장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모습도 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시144:12-15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구체

적으로 어떤 백성을 말합니까? 후반부에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성경에서 주님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요1:12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1:13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길은 인간적인 혈통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뜻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한 복이 임합니까? 시144:12-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12절입니다. "12.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잇돌들과 같으며." 이 말씀은 자녀들을 후손들을 아주 긴요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후손들에게 있습니다. 가정의 미래도 후손들에게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영화로운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아주 긴요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 찬송소리가 많이 들려져야 합니다.

13-14절입니다. "13.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14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우선 이 두 구절에서 14절 전반까지는 나라의 경제가 든든히 설 것을 말해줍니다. 하여튼 모든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면 됩니다. 정치란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잘 살게 해주는 일입니다. 백성의 안녕과 복지를 잘 해주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잘 살게 하는 일도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제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해도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고 발버둥 쳐도 보세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얼마나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오늘 13-14절 전반부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13.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 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14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다는 것은 자연 재해가 없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하는 백성인데 가뭄이나 병충해나 극심한 메뚜기 같은 것

들이 쳐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막아 주셔야 풍년이 됩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새끼들을 잘 낳아주어야 합니다. 새끼들이 태어나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 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 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워 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경제적인 복을 받고 삽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정말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교회가 이일을 잘 하도록 정말 나라에서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복이 임합니까? 14절 후 반부입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적들이 공격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많은 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나라에게 국방도 지켜주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거리에서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게 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전쟁을 당하거나 나라를 잃어버린 난민들 슬피 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의 문제가 꽤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의 남조선에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의 강성 발언과 평양 옥류관 주방장의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무례할 정도의 발언과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무장한 군사들을 접경지역에 배치하는 등으로 인하여 다시 한반도에 냉전의 기운이 감돌고 국제 사회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시33:2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13-14입니다. "1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며 14.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살피시는도다."

오늘도 한반도의 상황을 굽어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백성들이 나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지와 그렇지 못한 지를 굽어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일 오후 예배를 나라를 위한 기도 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16-19에 나타나 있습니다.

"16.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17.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18. 여호와를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면 반드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국하는 길이 복음 전도하여 사람들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속사람이 변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가정도 새로워집니다. 일터가 새로워집니다. 사회가 새로워집니다.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국방의 든든함을 특히 후손들을 통해서 나라가 더 영화롭게 만들어 주는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애국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즈음 제 마음이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 등록현황입니다. (등록 현황 사진) 하루에도 몇 번씩 목양 실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도의 열매가 다 끊겼습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19가 사탄처럼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질병으로 명하고 꾸짖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라를 살리는 애국의 길인 전도를 그만 둘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의 시대엔 나가서 대대적으로 복음을 말로 전할 수는 없고 밀폐된 집회를 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자들에게 수시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 못지않게 사랑의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매력적인 삶으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만날 때 마다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당신 같으면 주님을 믿어보겠다는 고백이 나오는 매력적인 삶으로 복음 전도하여서 애국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19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때엔 다시 힘차게 복음을 나가서 전할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삶의 처지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매력적인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애국의 길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을 15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